

포항의 빛, 세계로 향하다

제6회 포항국제불빛축제

프로그램 구성

일자	북부해수욕장	시내일원	형산강체육공원
7.24(금)	· 전야제 (전국해변 가요제)		
7.25(토)	· 식전행사 (한여름 밤 콘서트)	· 전국특산물 대전 (두호해안)	
	· 개막식, 주제극 · 국제뮤직불꽃쇼 · 축하공연		· 포항바다국제연극제 (환호공원)
7.26(일)	· 체험행사	· 불빛 미술대전 (문예회관)	· 형산강배 용선대회
			· 불빛 퍼레이드 (영흥초등~형산로타리)
			· 시승격 60주년 경축행사 미니 불꽃쇼

부대행사

- 해변 모래조각전, 맨손고기잡기, 해병문화체험, 해경함정 공개행사, 경북축제 홍보센터
- 불빛 CITY투어, 불빛 사진공모전, 유등제, 국악 한마당, 위그선 체험
- * 기타 : 전국 배드민턴대회, 자매도시간 체육대회

- 기간 : 2009년 7월 25일(토)~26일(일) 2일간 ※24(금) 전야제
- 장소 : 북부해수욕장, 형산강둔치 등 관내 일원
- 주최 : 포항시 (불꽃주관-POSCO)



논

여기 밭 담근
모든 볍씨
지나가는 먹구름 별 여름비 바람 불려들여
몸 삭히고 싹을 틔워
너의 고단한 저녁상에 둘러앉은
아내와 아이들의
따신 쌀밥이 되리니

여기 뿌리 내린
모든 벼
오가는 황새 두꺼비 미꾸라지 물뱀 불려들여
사랑하고 다투는 세상 소식
귀동냥해 듣고 자라서
좁한 길 건너느라 지치고 다친
아버 어머니를 다독이는
뜨거운 눈물밥이 되리라

최부식 시인

1957년 경주 출생. 1989년 「포항문학」으로 등단. 포항 MBC 근무.

열린 포항

www.ipohang.org



» 04



» 08



» 16



» 18



» 26

2009 6 CONTENTS

- 04 특집 | 민선4기 출범 3년의 보람과 과제
- 08 기획 | 7월은 감동이 넘치는 문화·축제의 달
- 14 우리 고장의 전래동화 | ④ 그리운 섬, 자미도
- 16 건강칼럼 | 건강한 여름나기
- 18 현장25시 | 개장 준비에 땀 흘리는 해수욕장
- 20 시정브리핑 |
- 23 의정브리핑 |
- 24 포항레이더 |
- 26 I♥POHANG |
- 27 지상갤러리 |



시승격60주년 기념조형물
사진 • 정미향

- 발행처 : 포항시 | 발행인 : 포항시장 박승호
 - 편집인 : 공보담당관 방진모
 - 편집담당 : 홍보기획팀장 김동완, 김경란
 - 담당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 Tel : 054 · 270 · 2334
 - 발행일 : 2009년 6월 25일
 - 기획·편집 | (주)금강미디어 Tel : 054 · 275 · 0558
 - 인쇄 | 남진인쇄 Tel : 054 · 274 · 1567
 - 홈페이지 : www.ipohang.org
- ※ 열린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개항을 앞둔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



시민들로 붐비고 있는 중앙상가 설계전

민선4기 3주년 그 보람과 향후 과제는?

● ● ● 오는 7월 1일은 민선4기 출범 3주년이 되는 날이다. 민선4기는 지난 3년 동안 다소의 부족함은 없지않았지만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적인 추진력으로 여러 가지 성과와 보람도 만들었다, 그리고 향후 1년의 과제는 무엇인지 민선4기 출범 3주년을 맞아 짚어본다. ● ● ●

도전과 열정으로 이룬 성과와 보람

지난 2000년을 정점으로 포항의 인구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대도시 특례가 인정되는 인구 50만 유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는 포항에서의 삶이 그만큼 힘들어졌음을 뜻한다. 그렇게 포항시민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져 갔고, 포항의 시련도 그만큼 커져만 갔다.

민선4기 시정은 출범과 함께 '조용한 시정은 일하지 않는 시정'으로 규정하고,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포항이 당면한 침체와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하는 시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민선4기는 2천여 직원들에게 후진적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부터 강력하게 주문했다.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적인 노력, 창의적이고 과감한 추진력을 요구했다.

그리고 포항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고·최선의 선택으로 '기업투자유치'에 방점을 두었다. 기업하기 좋은 포항'을 천명했고, 기업투자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갔다.

직원들은 하루가 멀게 닦치는 업무를 처리하느라 호된 시련을 겪었다. 하지만 포항시정은 눈에 띄게 '일하는 시정'으로 변모해 나갔다. 때마침 대잠동 청사시대가 열리면서 포항에는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포항은 그간의 어려움을 넘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이윽고 포항의 발전적 변화를 알리는 상징적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하반기 착공 예정인 동빈내항 복원사업



● 특 집 ● 민선4기 출범 3년의 보람과 과제



무엇보다 노사정이 함께 산업평화를 선포하면서 기업투자유치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이를 신호탄으로 강림중공업, 참엔씨 등 국내 굴지의 중견기업들이 앞 다투어 포항투자를 발표했다.

내친김에 포항의 품격을 끌어올릴 환경·문화·관광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했다. 테라노바 포항 프로젝트를 선포하고, 새롭게 태어난 포항국제불빛축제는 경북의 대표축제로 발전했다. 갈수록 침체되던 중앙상가는 실개천이 열리면서 명품문화거리로 재탄생해 활력을 찾았다. 포항지능로봇연구소가 개소되고 '로봇시티 포항'이 선포되었다. 첨단산업·환경·문화가 공존하는 인간중심의 선진일류도시, 글로벌도시 포항을 향한 본격적인 걸음마를 시작했다.

이렇게 민선4기는 2천여 직원들의 봉사와 희생이 요구되는 변화와 혁신,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적인 노력, 강력하고 창의적인 추진력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3조 원대 기업투자유치라는 성과를 올렸다.

그리고 '일하는 시장'을 구축하여, 지난 40년간 조성된 규모를 뛰어넘는 2,374만㎡에 이르는, 미래 포항의 동력이 될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괄목할 결과를 나타냈다.

여기에 동빈내항 복원사업 등 핵심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대부분 사업들이 구체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또한 국내외를 가리지 않은 포항세일즈 시정을 적극적으로 구축·전개하여 국내외에 포항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여 나갔다. 무엇보다 포항시민들이 그간의 침체와 좌절을 딛고 희망과 자신감을 찾은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

이러한 변화는 바로 인구증가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51만을 돌파한 포항인구는 이제 52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사람과 돈은 희망이 있는 도시로 몰리기 마련이다. 포항은 불과 3년만에 위기의 도시에서 희망의 도시로 거듭났다. 지난해 6월 포항시민 702명을 대상으로 포항시가 에이스리서치를 통해 실시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포항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시민 10명 가운데 8명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도약의 기회

포항에는 지금 대형 프로젝트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오는 8월에는 국제항만인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가 개항한다. 비야흐로 포항은 환동해경제권 국제물류 경제중심도시를 향한 힘찬 항해를 시작한다.

이와 함께 컨테이너 터미널이 포함된 140만㎡ 규모의 자유무역지역, 424만㎡에 달하는 항만배후단지, 그리고 부품소재 전용단지를 포함한 634만㎡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한창이다. 일부 산업단지에는 이미 기업들의 입주 시작되고 있다. 지난 5월 27일 강림중공업 준공을 시작으로 투자유치기업들이 속속 준공되고 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고용창출의 서막이 오르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동해·장기면 일원에는 664만㎡에 달하는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흥해읍 대련·이인리 일원에는 375만㎡ 규모를 자랑하는 IT융합 중심의 경제자유구역이, 연일읍 학전·달전리 일원에는 277만㎡ 규모의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조성이 진행되는 등 포항의 경제·산업지도는 하루가 멀게 달라지고 있다.

또한 구도심 재생프로젝트의 출발이 될 동빈내항 복원사업은 대한주택공사와 세부실 무협약을 끝내고 보상작업에 들어갔고, 오는 10월 착공한다. 여기에 올해 내로 동빈부두가 녹지·테마거리 등 친수공간으로 변하고, 북부해수욕장에는 테마거리가 조성된다.

아울러 광역교통망 구축에도 탄력이 붙었다.

지난 4월에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기공식이 있었고, 동해중부선은 이미 착공되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내년에 완공되며,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는 실시 설계와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글로벌 포항을 향한 기반이 착착 구축되면서 철강 일변도의 취약한 산업구조도 첨단과학·국제물류·부품소재·녹색성장·해양관광 등으로 점차 다변화·고도화 되어 포항의 경제체질을 점점 강화시키고 있다.

한편, 시승격 60주년이라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아 '이제는 세계일류도시로 가자'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포항은 지금 세계일류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시대적 역사적 책무에 대한 인식과 새로운 자세 필요

포항은 서울의 2배에 가까운 면적을 가진 큰 도시이다. 여기에 162km의 해안선에 펼쳐진 수려한 경관은 미래 포항의 압권이 될 것이다. 일찍부터 풍부한 성장 잠재력으로 영일만 기적을 이루었던 포항. 오늘날 포항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은 글로벌 포항으로 가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그만큼 포항은 할 일이 많은 도시다. 그래서 민선4기 향후 1년의 과제도 오늘날 포항에 주어진 기회를 극대화하는데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포항공동체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자금의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글로벌 도시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포항시는 오늘날 포항에서 전개되고 있는 도약의 기회는 땀과 노력, 혁신과 창의가 점철된 상황에서 참으로 어렵게 찾아온 소중한 것임을 명심하면서, 직원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막중한 시대적, 역사적 책무를 상기하고, 무한 봉사의 자세를 더욱 새롭게 다지면서, 포항의 후손들에게 '명품 포항'을 물려주는 대역사(大役事)에 신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 1 영일만항 개항 D-100일 현재 모습
- 2 대한민국 공인문화대상을 수상한 중앙상가 실개천
- 3 동빈내항 복원사업 조감도
- 4 대잠동 신청사 개청식
- 5 기업 투자 유치 활동
- 6 포항 산업평화도시 선포
- 7 영일만항 조감도
- 8 현장 방문에 나선 박승호 시장
- 9 동해 남부선 복선전철 철화사업 기공식

문화도시로 진화하는 포항 한여름밤, 문화를 밝힌다



●●● 포항의 7월은 문화행사로 채워진다. 여름이 무르익는 7월 초하루부터 시작되는 각종 문화행사는 8월 하순까지 이어진다. 특히 올해는 시승격 6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뜻에서 각종 문화행사가 예년에 비해 훨씬 다채롭고 깊이 있게 구성된다. 그 절정이 될 포항국제불빛축제를 비롯해 세오녀문화제, 여기에 포항소재 문학작품공모전과 불빛미술대전 등이 포항의 한여름 밤을 문화 속으로 밀어 넣을 것이다. 포항은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름 문화도시로 거듭 진화하고 있다. 7월 문화행사를 일정별로 알아본다. ●●●



제12회 포항 세오녀 문화제 | 7월 1일 ~ 7일

제14회 여성주간과 시승격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포항 60년, 여성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여성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하는 축제로 승화시켜 여성발전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 제14회 여성주간 기념식 : 7월6일 10:30~11:30, 포항실내체육관
 - 포항시 여성화합 체육대회 : 7월6일 11:30~17:00, 포항실내체육관
 - 탈 인형극 '소중한 내 몸은 내가 지켜요' :
7월1일 09:00~13:00,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학부모 독서지도 세미나 : 7월3일 10:30~12:30,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지역발전과 여성단체의 역할 세미나 :
7월7일 14:00~16:00, 문화예술회관 소강당
 - 포항 여성영화 상영회 : 7월2일 10:00, 19:30 포항시청 문화복지동
 - 포항MBC 여성주간 무료영화 상영회 : 7월7일 10:20 포항롯데시네마 (마더)
- [문의 : 여성가족과 270-3013]



포항소재문학작품공모전 | 7월 1일 ~ 8월 31일

- 공모부문 : 시, 단편소설, 수필
 - 응모자격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 응모편수 : 시 3편 이상, 단편소설 1편 이상, 수필 2편 이상
 - 응모요령 : 포항소재 문학작품 현상공모 홈페이지(<http://lovepohang.net/>)에 게시한 응모 요령대로 제출하여야 응모작으로 인정함.
 - 상금내역
대상 1명 300만원 / 최우수상(각 부문당 1명) 각 100만원 / 우수상(각 부문당 2명) 각 30만원 / 각종 이벤트(포항에서 있었던 일과 특별한 생각 등을 짧은 글로 올리는 이벤트) - 100명을 뽑아 소정의 상품을 드림
 - ※ 입상작들은 기성 문인들의 포항소재 작품과 함께 단행본에 수록되고, 표절한 작품이거나 이미 다른 지면에 발표된 작품으로 밝혀지면 입상이 취소된다. 또한 응모자의 성명은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한다.
- [문의 : 포항문인협회 포항문학 281-0930]

① 올해의 세오녀 문화제는 시승격60주년을 맞아 포항여성의 역량 결집에 역점을 두고 있다

② '2008 포항불빛미술대전'에서 특선을 한 이윤근씨의 「내연산 상생폭」



● 기획 ● 7월은 감동이 넘치는 문화 축제의 달



포항불빛미술대전 | 7월 21일 ~ 25일

향토 미술인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포항의 역사성, 지역성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포항불빛미술대전]이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도 예년과 같이 불빛축제와 연계해 열리게 된다. [문의 : 문화관광과 270-2263,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 232-1965]

포항국제불빛축제 | 7월 25일 ~ 26일

경북을 대표하고 대한민국 여름축제의 아이콘이 되고 있는 [포항국제불빛축제]가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북부해수욕장, 형산강체육공원 등 시내일원에서 '포항의 빛, 세계로 향하다'를 주제로 화려하게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경제위기를 감안, 축제일정을 대폭 축소시켰다.

하지만 시승격 60주년 행사를 불빛축제와 연계시키는 등 그만큼 짜임새와 볼거리는 훨씬 알차게 구성되었다. 궁지의 빛(개막식, 국제뮤직불꽃쇼, 축하공연, 문화체험행사), 통합의 빛(불빛퍼레이드, 컨셉카 경연대회, 형산강배 용선대회), 도약의 빛(시승격 60주년기념식, 한류스타 경축행사, 미니불꽃쇼)을 소주제로 하여 이틀간 진행된다. 그리고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 먹을거리 등 부대행사도 곁들여진다.

북부해수욕장에서는 7월 24일 전야제 행사의 일환으로 [제3회 전국해변가요제]가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210개팀 중 본선에 진출한 20개팀이 자웅을 겨루면서 불빛축제 전야의 밤을 달군다.

축제 개막일인 25일에는 오후 7시 30분부터 식전행사로 [한여름 밤의 콘서트]가 열린다. 70~80년대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애창곡에 대한 공연을 통해 중년층에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을 제공하여, 시민 화합을 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녁 8시부터 개막식과 함께 국제뮤직불꽃쇼가 1시간 동안 포항의 여름밤을 수놓고, 초청가수 축하공연이 밤 11시까지 이어진다.

축제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주로 형산강체육공원에서 행사가 진행된다. 47개팀 800여 명이 참여하는 형산강배 용선대회가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특히 오후 6시부터는 불빛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포항시승격60주년기념행사]가 열린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 부대 및 연계 행사가 시내 곳곳에서 열린다. 전국특산품대전(두호해안), 바다국제연극제(한호공원), 불빛모래조각전(북부해수욕장), 황금 1돈 행운의 물고기를 잡아라(북부해수욕장), 해병문화체험(형산강체육공원), 유등제 및 국악한마당(형산강체육공원), 위그선 체험, 해경함정공개행사(울릉도선착장) 등이 다양한 부대 및 연계 행사들이 진행된다.

[문의 : 문화관광과 270-2253~4, 13쪽 포항국제불빛축제 프로그램 참조]

포항시승격60주년기념행사 | 7월 26일

시승격일인 8월 15일 열릴 예정이던 [포항시승격60주년기념행사]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 등의 차원에서 7월 26일 불빛축제와 연계해 형산강체육공원 등에서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시승격 60주년을 맞아 시민 화합과 지역 통합을 통해 새로운 포항시대를 힘차게 열어가자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불빛퍼레이드(시가행진)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영흥초등학교에서 형산로터리에 이르는 불빛퍼레이드는 포항이 고대의 빛, 자연의 빛, 문명의 빛이 어우러진 빛 문화의 발상지임을 퍼포먼스로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긍심은 물론 빛과 희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 여기에는 국내외 자매도시 사절단도 동참한다.

저녁 8시부터는 [포항시승격 60주년 경축행사]가 형산강체육공원에서 진행된다. 모듬북공연과 수상퍼레이드가 식전행사로 열리고, 기념영상·헌시낭독·화합퍼포먼스 등의 기념식에 이어 미니불꽃쇼 있고, 연이어 축하공연이 밤 11시까지 계속된다.



3 시민 화합의 장이 되어줄 각종 문화행사가 시승격 60주년을 맞아 더욱 다채롭게 구성되어 7월부터 8월하순까지 이어진다

4 중앙상가 실개천에서 청소년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다

5 세계인을 하나로 묶어줄 포항국제불빛축제가 '포항의 빛, 세계로 향하다'를 주제로 7월 25일부터 이틀간 화려하게 펼쳐진다

6 시승격 60주년을 맞은 시청사



[문화마당]

»» 초청 및 문학행사

- 주 최 : 포항향토청년회
- 일 시 : 6월27일(토) 14:00~16:0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제25차 전국불청대회

- 주 최 : 대한불교청년회경북지구
- 일 시 : 6월28일(일) 10:00~12:0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시립합창단 제70회 정기연주회

- 주 최 : 포항문화예술회관
- 일 시 : 7월2일(목) 19:30~21:30
- 제 한 : 5세 이상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지역작가 초대전 -3인 3색전

- 일 시 : 7월13일~7월19일 10:00~19:0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시립교향악단 제97회 정기연주회

- 주 최 : 포항 문화예술회관
- 일 시 : 7월17일(금) 19:30~21:30
- 제 한 : 초등학생 이상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차향이 있는 작은음악회

- 주 최 : 포항 문화예술회관
- 일 시 : 7월22일(수) 11:00~12:00
- 제 한 : 5세 이상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김현근의 호랑이 이야기

- 주 최 : 문화예술회관
- 일 시 : 7월23일(목) 19:30~21:00
- 장 소 :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관람료 : 전석(13,000원)
당일현장(15,000원)



»» 2009년 포항문학 신인상 발표

2009년 포항문학 신인작품상에 안병호 씨의 <사막의 풍경>이 당선되었다. 당선자의 소감에서도 밝혔지만 뜻하지 않은 병을 얻어 겪은 고초가 그의 시의 결 깊음을 만든 것 같다. “글에 나타난 삶의 진정성과 내용과 표현의 깊이를 골고루 갖춘 시를 얻은 포항 문단은 매우 행복하였다. 숨어있는 진주를 발견하는 기분이었다”고 심사위원들은 소회를 밝혔다. 안 씨는 1963년 경남 김해 출생으로 1991년 동국대를 졸업하고 2004년 제25회 근로자문학제 시부문 금상을 받은바 있다. 현재 YOUNGSHIN PRECISION CO., LTD 경영기획실에 근무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 앞으로 문단활동을 통해 더욱 정진할 것임을 당선소감을 통해 밝혔다. <포항문학 발췌>



»» 박충흠 조각 특별 전시회

포항시승격 6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적인 조각가인 박충흠 선생의 특별초청 조각전시회를 해도근린공원에서 6월 12일부터 12월 까지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는 철을 소재로 한 조형예술로 철의 이음새 틈사이로 표현되는 빛의 연출을 표현한 작품들로 포항을 상징하는 철강산업도시와 빛의 도시 이미지를 표현한다. 박 선생은 1946년 서울출생으로 독립기념관 3·1정신상과 제네바 유엔대표부 조각상 등 국내외 30여 도시나 공간에 걸맞는 작품을 설치한 최고의 작가이다.



제6회 포항국제불빛축제

세부프로그램안내

7.24 (금) - 전야제

행사명	시간	행사내용	장소
해변 가요제	19:00~21:00	· 약 210팀 예선 후 본선20팀	북부해수욕장 특설무대

7.25 (토)

행사명	시간	행사내용	장소
한여름 콘서트	18:00~20:00	· 초청 연예인 공연(포항연예인협회 주관)	북부해수욕장
주제영상	20:00~20:10	· 축제의 정체성, 포항의 역사, 포항비전	북부해수욕장
개막식	20:10~20:40	· 대북공연, 영상인터뷰, 시장님 개막인사, 주제 퍼포먼스	북부해수욕장
국제뮤직꽃쇼	20:40~21:40	· 국내 1, 해외 1팀(프랑스)	북부해수욕장
축하공연	21:40~23:00	· 초청가수 공연	북부해수욕장
Clean 캠페인	23:00~	· 행사장 자율 정리 캠페인	북부해수욕장

7.26 (일)

행사명	시간	행사내용	장소
형산강배 응선대회	09:00~ 18:00	· 47개팀 800명	형산강체육공원
불빛 퍼레이드	18:00~ 20:00	· 고대의 빛, 자연의 빛, 문명의 빛이 어루러진 빛 · 문화의 발상지임을 퍼포먼스로 구현 · 전통문화 재현, 시 승격 60주년 경축 · 컨셉카 경연대회, 창작조형물, 문화예술단 · 국내외 자매도시 사절단	영흥초동~ 형산로타리
시 승격 60주년 경축행사	20:00~ 21:00	· 식전행사(모듬북, 수상퍼레이드) · 기념 영상, 헌사낭독, 영상메시지, 기념사 · 비전영상 · 화합 퍼포먼스, 시민의 노래 합창	형산강체육공원
미니꽃쇼	21:00~ 21:10	· 무대효과와 더불어 경축연화	형산강체육공원
축하공연	21:10~ 23:00	· M.net 슈퍼콘서트 (인기가수 및 한류스타 경축공연-방송 프로그램)	형산강체육공원
Clean	23:00~	· 행사장 자율 정리 캠페인	형산강체육공원

부대 및 연계행사 일정

행사명	시간	행사내용	장소
전국 특산물 대전	7.24~7.26	· 농축수산물 전국 특판장 운영	두호해안
포항바다국제연극제	7.26~8.4	· 제 9회째, 해외 4팀, 국내 24팀	환호공원
포항불빛미술대전	7.21~7.25	· 제 4회째, 6개 부문	문화회관
불빛 모래조각전	7.24~7.26	· 모래조각 작품전 및 일반인 경연	북부해수욕장
황금 물고기를 잡아라	7.26	· 황금 1톤 행운의 물고기 잡기	북부해수욕장
시티 투어	7.25~7.26	· 관광지, 산업지 등 2개 분야 투어	관광 및 산업
해병문화체험	7.26	· 상륙시범, 장비전시, 문화체험	형산강체육공원
유등제 및 국악 한마당	7.24	· 형산강 유등제 및 국악 한마당	형산강체육공원
해경합정공개행사	7.25	· 합정 내부견학	울릉도선착장
불빛 사진공모전	7.24~7.31	· 축제관련 전국사진 공모, 사진교실 운영	북부해수욕장
경북 축제홍보센터	7.24~7.25	· 도내 축제홍보센터 운영	두호주차장 앞

※ 전국 배드민턴대회 (7.24~7.25), 자매도시간 체육대회 (7.25)

자미도,

넓디넓은 동해 바다 한가운데 아름다운 섬 자미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 섬에서는 높고 낮음이 따로 없었대요. 서로 가진 것을 나눌 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혼자만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도 없었대요. 땅에는 천 가지, 바다에는 만 가지 먹을거리가 사람들을 먹여 주었습니다.

물에 사람들은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플 때마다 자미도를 그리워했지요.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하다보면 문득 수평선에 자미도가 홀연히 없었다 사라지곤 했어요.

두무치 마을에 가난한 어부 '이생' 이 살았어요.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아와도 늘 손에 남는 게 없었어요. 나라에 올리는 진상품은 말할 것도 없고, 고을 잔치는 왜 그리도 많은지요. 그 때마다 생선을 잡아다 바쳐야 했어요. 어디 그뿐이었겠어요. 양반입네 하며 거들먹대는 사람들까지 나서서 이생의 물고기를 빼앗아 가고 나면 이생의 손에는 오히려 생선이 모자랄 지경이었지요. 물나물이나 산비탈을 갈아서 겨우 얻은 짭자른 풀죽으로 식구들 목숨 줄을 이어야 했답니다.

“가야지. 휴우, 가야지.”

“아니, 어딜 간다고 그래요?”

“누렇게 부은 얼굴로 아내가 물었어요. 자꾸만 중얼거리는 남편이 걱정되었답니다.

“우리 자미도로 갑시다.”

“뜬금없이 자미도는 뭐요?”

“일한 만큼 먹고, 까닭 없이 업신여김 당하지 않는 곳ियो.”

“아니, 그 곳이 대체 어디라고요?”

“저어기 바다 가운데요.”

“아니, 당신 며칠 굶더니 실성했소? 저 바다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래요. 바다 속이면 모를까.”

“정말이요. 본 사람도 있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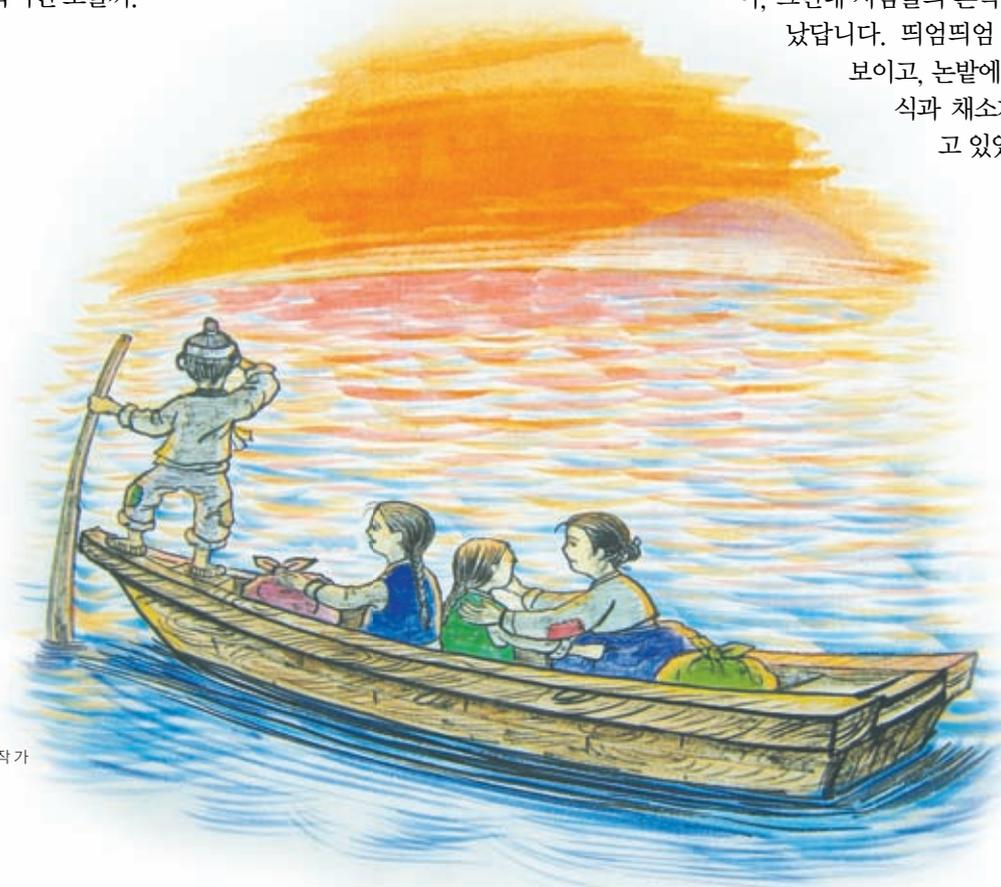
“그런 쓸데없는 생각 말고 퍼뜩 잠이나 자고 널 일찍 일어나 나가소.”

그리운 섬, 자미도

●●● 두무치(두호동)에는 이상향, 자미도를 다녀온 어부가 살았다고 합니다. ●●●

| 글 | 김일광 · 동화작가

| 그림 | 최수정



“내 이번에는 꼭 자미도 찾아보고 오리다.”

아내는 대꾸대신 ‘꽁’ 앓는 소리를 내며 돌아누웠어요. 오죽했으면 저런 소리를 하겠나 싶어서 마음이 짠했답니다.

이생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배를 띄웠어요. 팽팽하게 바람을 받은 돛은 배를 멀리 멀리 끌고 갔어요. 배도 자미도를 찾고 싶었나 봅니다.

“어이 여보게! 이쯤서 그물을 내려야지.”

함께 온 박 서방이 돛을 내리려 하였어요.

이생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먼 바다로 나가자 서서히 바람이 일더니 너울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아뽀싸, 물러드는 구름을 보지 못했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배는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바람을 이기지 못한 듯이 채 내리기도 전에 그만 부러지고 말았어요. 배가 나뭇잎처럼 흔들리면서 뱃사람들은 모두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며칠이나 지났는지 알 수도 없었어요. 배는 바다를 끝없이 떠돌아다니다가 한 섬에 닿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섬에 올라가보니 향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어요. 당장 목이 타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비틀대면서 물을 찾아 섬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아, 그런데 사람들의 흔적이 나타났답니다. 띄엄띄엄 흙집이 보이고, 논밭에서는 곡식과 채소가 자라고 있었어요.

“살았다. 살았어!”

이생은 있는 힘을 다하여 가장 가까운 집 앞에 가서 소리쳤어요.

“계세요! 사람 살려요.”

울부짖었어요. 조금 뒤에 문을 밀치고 머리카락이 허연 노인이 나왔어요.

“할아버지! 먹을 것 좀 주세요. 살려 주세요.”

이생은 그 말만하고는 풀썩 주저앉아버렸어요. 서 있을 힘도 없었답니다.

“어허, 이 풍랑 속에서 용케도 살았구먼. 애들아! 이 손님을 안으로 모셔라.”

노인의 말이 떨어지자 집안에서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 나와 이생을 부축했어요.

또 며칠이 살같이 지나갔어요. 이생은 노인의 돌봄으로 기운을 차릴 수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여기가 대체 어디니까?”

“그럼. 모르고 왔단 말이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신을 잃었다 눈을 뜨니 여기던데요.”

“여기가 바로 자미도라오.”

“옛, 자미도!”

이생은 말을 잊지 못했답니다. 입이 딱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노인은 이생의 모습을 보고는 빙그레 웃었어요. 그리고는 “내가 배 한 척을 마련해 두었으니 오늘 떠나시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배가 가는 대로 맡겨두면 될 거요.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되오.”

노인의 말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이생을 태운 배는 서쪽으로, 서쪽으로 달려서 두무치 해안에 닿았답니다.

이생은 바로 집으로 달려가서 식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배위에 올랐어요. 배에는 식량과 물도 실었어요.

“여보 마누라! 애들아! 우리 이제 자미도로 가는 거야.”

자미도를 향하여 달려갔어요. 희뽀하게 날이 새면서 물이 보였답니다.

“아니, 여기는 ……”

자미도가 아니었어요. 밤새 달려서 배가 닿은 곳은 두무치였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되돌아온 것이지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자미도로 떠났지만 닿은 곳은 역시 두무치였답니다. 이생 뿐만 아니었어요. 자미도를 찾아 두무치를 떠났던 박 서방과 어부들도 동해바다를 헤매다가 다시 두무치로 돌아오곤 했답니다.

자미도로 가는 길은 영영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여름은

날씨가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고 기운의 발산이 많아 다른 계절보다 쉽게 지치기가 쉬워서 보양식을 많이 찾고 시원한 음식을 많이 찾게 됩니다.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 상한 음식을 먹기 쉬우니 조심해야 하며 상한 음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찬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장의 온도가 내려가 설사도 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장이 차지면 장에 혈액 순환이 그 만큼 덜 되어 장 기능 저하로 인체의 피 생산이나 독소처리가 덜 되어 대사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병에 걸린 신체를 건강한 체질로 바꾸는 상식적이고 순리에 따른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백혈구와 적혈구를 갖게 하여 독소와 노폐물이 제거된 깨끗한 피를 신체에 공급하면 됩니다. 혈액을 구성하는 백혈구와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최종장소는 대장입니다.

일반적으로 골수에서 많은 피가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지만, 장에서 조혈된다는 이론이 발표되었습니다. 장에 있는 적혈구 모세포는 수많은 적혈구를 생산하고 이 적혈구는 대형의 과립 백혈구와 소형의 임파구를 만들어 냅니다.

여름철 건강산책

채식으로 혈액 속 독소제거해 건강유지

글쓴이 김상국 한의원장

- 동국대학원 내과학 전공
- 前상지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 前서울 MBC라디오
- 출발라디오행진 365일 한방상담원
- 저서 : 「굿바이 치질·치루」-1994년

설사하혈·심천사혈요법

만병은 어혈이 혈관을 막아 피가 잘 돌지 못하여 발병을 하며, 사혈요법은 고혈압, 중풍, 치매, 두통, 당뇨초기, 간염, 간경화, 심장질환, 위장병, 신장병, 여성질환, 기미, 여드름, 아토피 피부염, 오십견, 디스크, 만성피로와 기타 질환에 탁월한 의술입니다.

암 같은 질환을 이겨내려면 이 임파구가 강력하나 못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체질로 어떻게 바뀌야 할까요?

식사요법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체질은 먹는 것으로 바뀐다는 가장 상식적인 것을 도외시하는 데서 불행이 커집니다. 사람의 체질을 근원적으로 바뀌주는 장기관은 용모 상태로 덮여있는데, 이것은 식물 모델라로 만들어집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적혈구의 원료는 식물입니다.

사람은 적절하고 안성맞춤인 식물만 잘 섭취하면 체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익히지 않을수록 효소가 살아서 대사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혈액 속의 독소를 제거하면 바로 체질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장내에서 육류가 이상발효를 하기 때문에 만성병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선진국에서 가장 많은 만성질환이 혈관 심장병입니다. 혈관 심장병으로 파생되는 식품은 정백식품, 즉 우리 몸에 중요한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등이 거의 소실된 녹말 덩어리인 백미, 백설탕, 화학소금 등이 있습니다. 심장병은 동물성 단백질 즉 고기, 계란, 우유 같은 것의 과잉 섭취에서 비롯되지요.

근래 들어 우리나라 의학자들이 소금류가 함유된 짠 음식을 적게 먹으라고 권고 합니다. 서구인들은 육식 위주의 식탁이고 고기는 그 자체에 나트륨이 많아서 소금을 적게 섭취해도 됩니다.

그러나 곡류와 채식 위주의 음식 문화를 가진 동양인들은 소금을 적절하게 섭취해야만 합니다. 간수가 빠진 천일염이나 죽염이 좋습니다.

고혈압이나 신장병 환자는 오히려 염분 섭취를 막으면 병이 더욱 악화 될 수 있으므로 좋은 천일염이나 죽염, 된장 같은 식품을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소금이 체내에 부족하면 탈염 상태가 되어서 심신이 무기력해지고 저항력이 약해져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대장에서 최종적으로 적혈구와 백혈구를 만든다고 했는데, 대장은 우리 인체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체 면역력이 80%정도를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환경은 가축을 기르면서 사료에 항생제를 넣어 사람은 그런 고기를 먹고 밀가루는 수출국에서 이동 중의 변질을 막으려고 방부제를 넣고 농약, 중금속과 식품첨가물 등 건강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음식물로 인해 대장에 있는 수많은 유산균이 무기력해지고 장에서 독소가 생겨 혈액을 탁하게 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등 대사질환을 일으키게 만들어 성인병이 점점 더 많아 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몸에 쌓인 독소와 혈관과 복부의 체지방을 분해·배출하는 발효한약이 있으며, 사혈요법을 통해서 혈관에 쌓인 어혈을 제거하므로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혈액 속에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해서 평생 건강과 젊음을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김상국 한의원장

| 사진 | 정미향

동해안 최고의 해수욕장 개장으로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난다



1

지구 온난화로 인해 더위가 점점 일찍 찾아오고 길어지고 있다. 혹자들은 우리나라가 아열대기후 현상을 보인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태양은 벌써부터 한여름 마냥 뜨겁다. 이미 포항의 바닷가 백사장들도 뜨거운 복사열을 뿜어내고 있다.

그런데 지역의 해수욕장 백사장들이 예년에 비해 더욱 눈부시고 투명해 보인다. 흡사 이물질이 없는 모래결정을 보는 듯하다. 때 이르게 내리는 강한 태양열로 인한 착시 때문일까? 그렇지 않았다. 원인은 해변 청소차(비치크리너)에 있었다. 비치크리너가 운행되면서 포항의 백사장들이 예년에 비해 훨씬 깨끗해졌다. 정갈한 모래밭과 푸른 바다가 슬슬 그리워지는 때이다. 이런 백사장을 가진 해수욕장이 더위에 달아오른 사람들을 유혹하고 찾게 한다. 포항지역 해수욕장들이 7월 1일부터 일제히 개장한다. 예년에 비해 열흘 정도 일찍 문을 연다. 이 때문에 포항시와 변영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지금 손님맞이 막바지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포항시는 올해도 안전사고 없이 친절하고 쾌적한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난다는 목표로 일찍부터 해수욕장 개장 준비에 나섰다.

피서객들이 겪을 사소한 불편까지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다시 찾고 싶은 안전하고 깨끗한 해수욕장을 위해 각종 시설물을 설치·보완·개선하고, 특히 비치크리너를 구입하여 지정 6개 해수욕장에 투입하고 있다. 무엇보다 친절하고 바가지요금 없는 머물고 싶은 해수욕장을 위해 변영회와 주민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가지는 등 벌써부터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해 왔다.

포항시는 지난해 해수욕장 피서객 330만 명의 30%를 초과하는 피서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동해안 최고 수준의 해수욕장으로 만드는 준비가 필요했다. 그래서 포항시는 지난 5월 20일 해수욕장 운영주체인 변영회와 해양경찰 등과 연석회의를 가지는 등 본격적인 개장 준비에 돌입했다.

이어 6월 1일에는 월포해수욕장에서 변영회 임원과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가졌다. 예년보다 개장이 빨라진 만큼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정비와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

특히 올해는 개장기간이 보름 정도 늘어났다. 북부·칠포·월포·화진·도구·구룡포 등 6개 지정 해수욕장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61일간 연장·운영된다. 물론 더위가 빨리 찾아오고 길어지는 배경도 있지만 최근의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외지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해 지역 관광소득을 배가시켜 시민들의 가계에 다소나마 보탬을 주겠다는 게 가장 큰 배경이다.

개장을 코앞에 둔 해수욕장들은 지금 각종 편의시설 점검을 비롯한 유지·보수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 칠포해수욕장에는 바다시청이, 월포해수욕장에는 야외공연장이 신축되어 피서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세족시설과 음수대 설치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대부분 유지·보수되어 개장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리고 청정한 수질도 해수욕장 활성화의 기본이 될 것이다. 관내 6개 지정 해수욕장의 수질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8일 해수를 채취, 경북도보건의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무엇보다 대장균수도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확인됐다. 특히 도심지역인 북부·도구해수욕장도 수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포항시는 피서객들에게 동해안 최고 수준의 해수욕장이라는 평가를 듣기 위해 세심한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챙기고 있다. 깨끗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을 위해 구청과 읍·면·동별로 각종 시설을 재점검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안전대책, 주변 민박업소, 대중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 상태도 세밀하게 살피고 있다. 관광객들로부터 작은 불편과 불평도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만성적인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변영회와 함께 포항시만의 '표준협정요금표'를 만들어 피서객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기로 했다. 바가지요금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준비까지 마쳐, 이제는 피서객들을 지역 해수욕장으로 유치하는 일만 남았다.

포항시는 앞으로 피서객 유치를 위한 다량의 홍보전단지 제작, 이를 포항의 관문인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 직접 배부할 계획이다. 그리고 수도권 피서객 유치를 위해 서울지하철 방송사와 협의하여 해수욕장 등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6월 15일부터 방영에 들어갔다. 오는 7월 14일까지 방영된다.



3

- ① 관광명소가 된 북부해수욕장의 고사분수
- ② 피서객들로 가득찬 포항의 해수욕장
- ③ 포항의 백사장들을 더욱 깨끗하게 만들어 준 비치크리너

|클| 편집실

부품소재산업단지 일본 투자설명회 ‘대성황’



포항시는 6월 4일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박승호 포항시장, 이상득 국회의원, 일본 하세가와 중소기업청장관, 항만 및 부품소재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일만항 부품소재 전용단지 일본 투자설명회를 열어 폭발적 반응을 얻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박승호 시장은 “포항은 8월 포항영일만항 개항을 앞두고 부품소재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 환동해 경제권을 이끌 영일만항과 부품소재단지에 투자하면 투자기업이 반드시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상득 국회의원은 “포항은 영일만항과 더불어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이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아시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떠오르고 있고, 포항에 투자하는 기업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하는 등 일본기업 투자유치에 열을 올렸다. 참석자들의 폭발적 관심 속에 진행된 이날 투자설명회는 영일만항의 입지적 장점과 각종 인센티브에 이어 부품소재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과 행정지원에 대한 설명과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부산항에 비해 어떤 이익이 있는지, 부품소재단지 세제혜택이 한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어떻게 다른 지를 묻는 시종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하세가와 일본중소기업청장관이 자신이 직접 추천한 15개 부품소재 관련 중소기업을 이끌고 참석했다. 한편, 설명회에 이어 구룡포에 살았다 출판기념회가 열렸으며 박승호 시장, 이상득 국회의원과 함께 모리 전 일본 총리, 아베 전 일본총리 등 500여명 등이 참석했다.

기업유치 1호 강림중공업 준공식 갖고 본격 가동



민선4기 박승호 포항시장의 기업유치 첫 작품인 강림중공업이 본격 생산에 들어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연간 3,000억 원 매출에 1천여 명의 고용창출이 기대 되는 강림중공업은 지난 5월 27일 영일만 2일반산업단지 내 포항공장에서 시명선 강림중공업회장, 박승호 포항시장, 최영만 포항시회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했다. 이로써 강림중공업은 민선4기 박승호 포항시장이 출

범한 이후 가 유치한 3조 원대 15개 기업 중 4번째 준공식을 한 기업으로 기록됐다. 시명선 강림중공업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에 준공된 포항공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이동식 공장 10동을 설치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설비를 갖춘 만큼 강림중공업과 포항시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장 준공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포항시 관계자와 관계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박 시장은 “강림중공업이 준공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경제위기 속에서도 차질 없이 준공식을 가지고 본격 생산에 들어간 강림중공업 시명선 회장과 직원들에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뜻을 52만 시민과 함께 보낸다”고 말했다. 강림중공업은 부지 5만평, 건평 3만2,000평 규모에 국내 최대 크기의 이동식 셀터(이동식 공장) 10동을 갖추고 조전기자재, 발전설비, 산업용보일러 등을 생산 90% 이상을 수출할 계획으로 있어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항국가산업단지, 행정절차 착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동해면·장기면 일원에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행정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5월 28일 국토해양부에 산업단지계획을 승인·신청함으로써 6월 1일부터 21일까지 시청과 구룡포읍사무소, 동해·장기면사무소 등에서 관련서류 열람이 있었고, 6월 9일에는 동해면사무소에서 주민합동설명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앞으로 관련부처와 산업단지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9월내지 10월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받을 예정이다.

동빈내항 복원사업, 제2차 주민설명회 열어



동빈내항 복원사업 공동시행자인 포항시와 대한주택공사는 6월 11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주민 900여 세대를 대상으로 2차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추진배경과 실행계획, 보상 및 이주 대책에 대한 기준, 보상절차 및 보상일정, 세금감면 등을 설명하고, 이주대상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동빈내항 복원사업은 현재 물건세부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7월 중 보상계획공고를 거쳐 8월부터 감정평가를 실시, 9월말부터 협의보상에 들어간다는 일정이다. 그리고 6월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면 이주대상 주민들이 다른 곳에서 택지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고, 보상받기 전에 사전 이주도 가능하게 된다.

포항, 자전거로 어디든 갈 수 있다

포항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감은 물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자전거도로 구축에 적극 나선다. 시는 지난 1999년 ‘자전거도로기본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22개 노선 32.2km에 달하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했고, 현재 2개 노선 3.7km 구간을 개설 중이다. 또 동빈내항 정비사업, 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사업 등 8개소 22km에 달하는 도로개설 구간에 4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자전거도로를 병행·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7월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위한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자전거도로 개설규모를 확정하고, 2010년부터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포항구간인 남구 장기면 두원리에서 송라면 지경리에 이르는 103km는 5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8년 완공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기본조례’ 제정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기본조례’가 경북 지역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졌다. 이 조례는 제15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공공기관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관리 ▲연면적 3,000㎡이상 공공기관 신축시 총 공사비의 5%이상 대체에너지 설비 사용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위한 제반정책 강구 및 인허가 등 처리시 장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일만항 개장기념 국제마케팅페어 개최

포항시와 PICT(주)는 6월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내외 굴지의 해운사와 화주, 포워딩업체, 항만물류 학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영일만항 개장기념 국제마케팅페어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경북의 관문항인 영일만항 개장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정중환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역출신 이상득 국회의원,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김관용 경북지사, 박승호 포항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포항시와 PICT는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 및 선사유치를 위해 천경해운, 고려해운, 남성해운, 장금상선,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대형 해운사와 글로벌비즈(주), 대우로지스틱, 은산해운항공 등 포워딩사, 지역물동량이 많은 POSCO, OCI, 현대제철, POSCO강판 등 화주기업 수출입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일만항 이용에 따른 물류비절감과 수출입경로 등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포항에 한수 배우러 왔습니다

충북 제천시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37명이 5월 22일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위해 포항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박승호 포항시장으로부터 우수시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포스코와 중앙상가 실개천을 견학하고 죽도시장을 관광했다. 염 시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포항의 우수시책에 대해 듣고 있고, 특히 도심에 물을 흐르게 하는 실개천과 동빈내항에 대해 한수 배우고 싶다”며 우수시책 벤치마킹에 대한 열의를 나타냈다.

화합과 통합의 장이 된 시민의 날 행사



포항시는 시승격 60주년을 맞아 시민 화합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6월 12일 저녁 7시부터 해동공원에서 2만여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발전 초석 60년, 세계일류도시를 향한 60년’이란 주제로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축하공연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시민상 시상, 기부자에 대한 공로패 수여, 시승격 60주년 기념조형물 점등식 등이 있었고, 축하공연에서는 장사익, 다비치, 현철 등 인기가수 공연에 이어 불꽃놀이 대미를 장식했다. 아울러 타임캡슐 수장품 수집, 포항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 아시아음식체험, 읍면동 먹거리 장터 등의 부대행사가 열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을 즐겁게 했다.

》》 일본기업 유치활동에 이은 지역현안 챙기기

이상득 국회의원이 일본에서 영일만항과 부품소재단지 투자설명회에 나선데 이어 6월 10일부터 3일간 포항을 방문, 박승호 시장과 함께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등 지역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이 의원은 10일 박 시장과 함께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현장을 방문, 장만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 관계자들로부터 현황설명을 들은 후 공사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일월-문덕 구간과 유강-연일 구간도 포항시와 협조해 2010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포항국가산업단지과 동해구획정리지구(금광C)간 2.8km 도로를 개설해 지지부진한 동해구획정리지구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당부하는 한편,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구간 중 장기면소재지 진입이 용이하도록 문덕과 감포 구간 사이에 IC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위치선정 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박 시장에게 주문했다. 또한 구룡포-대보 간 지방도 확장사업이 준공될 경우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어 이에 대처하여 구룡포 진입로에 IC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012년부터 포항에서도 프로야구 본다

포항야구장이 201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15일 설계경기 전국공모에 들어갔다. 포항야구장은 현재 남구청과 간ैया구장이 있는 남구 대도동 381-4에 총사업비 261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만1,500㎡, 관람석 1만석 이상 규모로, 전국대회와 프로야구경기가 열릴 수 있도록 조성한다. 오는 7월 10일 당선작 선정, 12월 착공, 2011년 12월 준공, 2012년 프로야구 경기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 죽도시장, 주말마다 외지인 넘쳐

지난 3월 철도공사와 전통시장 관광객 유치 업무협약 이후 주말마다 포항에는 관광객들로 북적인다. 6월 6일 서울지역 가족단위 관광객 800명이 무궁화호 관광열차를 타고 포항을 찾았다. 이날 새벽에 도착한 이들은 호미곶을 찾아 일출을 관람한 후 보경사 등 관광도 즐겼다. 이어 죽도시장에서 물회 등을 먹은 후 시장 곳곳을 돌며 싱싱한 활어와 건어물들을 쇼핑했다. 지난 4월 17일 충북지역 관광객 520명을 시작으로 이날 서울관광객 800명과 12일 서울지역 500명, 20일 경북북부지역 480명 등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4,000명의 관광객이 열차로 포항을 찾았다.

》》 과메기,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 출원

포항시는 '포항구룡포과메기' 브랜드 제고를 위해 5월 11일 '포항구룡포과메기' 상표(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을 특허청에 출원했다. 이번 출원은 포항시와 포항상공회의소, 과메기생산자영어 조합법인이 공동으로 과메기특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지리적 특성에 기인함을 증명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과메기 지역특성 및 품질특성에 관한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업무협약 체결

포항시와 한국폴리텍V대학 포항캠퍼스는 6월 9일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체결로 지역 내 일반산업단지와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 등에 입주 및 입주예정인 업체들의 기능인력 공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 포항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진화 중

포항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5월 28일 포항시청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기업하기 좋은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포항시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성장 인프라 산업분야인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 재해가 다량으로 발생됨에 따라 산업안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 북구보건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 수상

포항시 북구보건소가 5월 15일 전북 부안에서 열린 '2009년 제4회 보건의료정책워크숍'에서 마약류폐기신청 방문처리제 운영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표창과 시상금을 받았다.

》》 일본에 '영일만항 바람 부나?'

5월 21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열린 영일만항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일항만교류포럼'에서 긍정적인 발표들이 쏟아져 항만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포항영일신항만(주), (주)대우로지스틱스를 비롯해 일본 조에츠시, 기타규슈시, 시모노세끼시, 니가타시, 토마코마시, 니가타현, 토토리현 등의 공무원과 일본해사신문사, 일본뉴스통신사, 오션코마스사 해운기자단 등 50여명이 참석해 영일만항과 일본 서해항만의 상호발전을 위한 주제발표에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주제발표에서는 영일만항의 비교우위와 발전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으며,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영일만항 이용 시의 인센티브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 후쿠야마 시민사절단, 성과 톡톡히 거둬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일본 후쿠야마시 장미축제에 참가했던 포항시 친선사절단이 후쿠야마 시민사절단의 포항 답방을 이 끌어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후쿠야마 장미축제에 참가한 사절단 128명은 17일 장미축제 시가지 퍼레이드에 참가하여 후쿠야마 시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특히 6월18일 포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슈퍼모델선발대회'를 홍보하는 현수막과 '포항국제불빛축제'를 알리는 현수막 등을 들고 퍼레이드에 참가해 후쿠야마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현지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다. 일본 주코쿠신문은 16일자 신문에 포항사절단의 후쿠오카 방문 소식을 게재했고 17일자 신문에는 포항시를 소개하는 특집 기사를 실었다.

》》 제15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폐회



지난 5월 27일 개최한 제15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가 7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고 6월 2일 폐회했다. 시의회는 2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포항시 에너지기본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원안·수정 의결하고, 포항도시관리계획(원동1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각 상위원회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펼치기 위해 소관별 '200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한편,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회 차원의 각종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이재진·복덕규 의원이 '제5도시 녹색도시 포항건설을 통한 포항의 재탄생'과 '각종 공사 시 예산낭비 요인 해소와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 청양군의회 의장 일행 시의회 내방



포항시의회는 지난 5월 19일 오후 소회의실에서 충남 청양군의회 최병학 의장 일행의 방문을 받고 양 도시 간 우호증진 및 상호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의회 차원의 공동발전을 모색하자는 뜻을 같이했다. 이 자리에서 최영만 의장은 "작금의 화두인 저탄소 녹색성장, 생태계 복원을 통한 친환경도시 조성으로, 청양군이 칠갑산의 울창한 숲과 맑은 공기를 바탕으로 친환경 생명농업을 육성하고 생태체험관광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포항시도 죽장 상옥지역을 친환경 농업

지구(슬로우 시티)로 지정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최병학 청양군의회 의장은 먼저 "시승격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8월 개항을 앞둔 영일만항을 통해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포항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면서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벤치마킹해 청양군에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 2008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실시

포항시의회는 지난해 집행부의 예산집행 효율성, 합목적성, 적정성 여부 등 예산운용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각종 기금을 총망라한 1조 2천여억 원에 이르는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강도 높게 실시했다. 장필자 세입·세출 결산 감사위원회 대표위원은 "예산을 집행했으면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했는지, 낭비나 잘못된 것은 없는지, 철저한 결산을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비해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세입·세출에 대한 철저한 결산검사를 통해 그 관심도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위원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 인사와 함께 공정한 시각으로 예산을 올바르게 썼는지 꼼꼼히 확인했다"며 "특히 공공성과 관련해서는 미명 하에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온 부분을 집중 검사했다"고 밝혔다.

》》 시의회 의장단, 신임 해병1사단장 접견



포항시의회는 지난 5월 11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신임인사차 내방한 유낙준 해병대 제1사단장, 김상석 해군 제6항공전단장을 접견하고 지역협력사업은 물론 경제난국 조기극복을 위한 민관군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유낙준 사단장은 최영만 의장에게 "먼저 지난 4월, 남다른 해병대 사랑으로 '명예해병증'을 수상하신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2004년에도 해병1사단에 근무한 적이 있어 포항시민들의 해병대 사랑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영만 의장은 "그동안 태풍피해 복구 및 산불진화 활동, 각종 지역 봉사활동을 통한 대민 지원 등 지역 현안의 어려운 고비마다 헌신적으로 봉사해 준 해병 장병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화답했다.

>>> 장기 양포항에서 색소폰 연주 감상하세요

포항드림색소폰 앙상블 연주단(단장 김세욱)이 지난해 어촌관광 사업 목적으로 조성된 장기면 양포항 해상공연장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색폰 연주회를 연다. 이번 연주회는 단원 24명이 교대로 6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후 4시에서 7시까지 공연한다. 연주단은 환호해맞이 공연장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해왔으며, 지난 7일 장기산딸기 축제 시 양포항 해상공연장에서 공연을 펼쳐 관광객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선사한바 있다. 연주단 관계자는 “이번 연주회로 양포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추억과 낭만을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해양수산과 270-2763]

>>> 한우고기 안심하고 구입하세요!

포항시는 6월 22일부터 ‘소 및 쇠고기이력추적제’를 도축장, 식육가공장, 축산물판매업소 등 유통단계까지 전면 시행한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식육판매업소에서 구입하는 쇠고기 이력서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육표시판에 표시되어 있는 개체식별번호 12자리 숫자를 휴대폰이나 인터넷에 입력하면 쇠고기 종류, 출생일, 사육자, 도축장, 등급 등에 관한 정보를 바로 볼 수 있다. 또 구입한 쇠고기에 관한 내용이 의심될 때도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농축산과 270-2663]

>>>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은 제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납세자는 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또 남구청 세무과(270-6241)나 북구청 세무과(240-7241)로 연락하면 즉시 재발급, 우송해 준다.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농협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현대·삼성·BC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 인감보호(해제)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포항시는 시민들이 신고한 인감의 안전한 발급을 위해 인감대상 일제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시민들이 신고한 인감도장을 특별히 보호해 주는 제도로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 외 발급금지 등을 요청하는데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읍면동사무소 인감담당자]

>>> 근로 무능력 가구에 한시생계보호사업 시행

한시생계보호 대상은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 가구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과 총재산 8,500만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의 조건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하여 신청 및 조사를 거쳐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한다. 한시생계보호 신청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대상자 본인이 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009년 7월말까지 신청 시 6개월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민생안정추진TF팀 270-2922~3]

>>> 재산담보부 생계비 용자지원 사업 시행

소득은 적지만 보유재산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보유재산을 담보로 저금리 장기상환조건으로 용자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용자 지원사업’이 오는 12월 9일까지 시행된다.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이며, 담보재산은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이 해당된다. [문의 : 민생안정추진TF팀 270-2922~3]

>>> 6월 포항시민교양대학 안내

- 일 시 : 6월 24일(수) 오후 2시
- 장 소 : 포항시청 문화복지동
- 강 사 : 손숙(연극인, 前 환경부장관)
- 주 제 : 나눔의 행복

>>> 7월 시민정보화 교육(무료) 안내

- 교육과정 : 컴퓨터왕초보 등(9개 과정 9개 반)
- 신청기간 : 6월 29일(월) 09:00부터 선착순
- 교육 및 신청 접수 장소
 - 시청 교육장 강의실(문화복지동 2층) : 270-5825
 - 남구 교육장 1,2강의실(종합운동장 2층) : 270-5823
 - 북구 교육장(북구청 주민생활지원과 3층) : 270-5824
- 교육과정 및 시간, 인원, 인터넷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강좌/시설/공연 안내서비스>로 접속 후 ipohang ID와 비밀번호 입력(ID 없을 경우 회원가입 후 실행) 최근 강좌 수강신청 가능한 강좌명 선택 [문의 : 정보통신과 지역정보담당 270-2304]

>>> 삼성전자, 에어컨 무상점검 실시

삼성전자서비스 포항센터에서는 6월 30일까지 지역시민들께 폭염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여름 전에 에어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문의 : 무상점검서비스 241-3404, 교장·수리접수 1588-3366]

>>> 장애인 직업 훈련생 모집

- 모집분야 : 전자, 정보, 의상, 디자인, CAD·CAM, 시각·척수·지적장애인 특화훈련
- 응시자격 : 만 15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 응시기간 : 연중 수시모집
- 특 전 : 교육훈련비용 전액 국비지원 무료, 2인 1실의 기숙사 및 식사 제공, 훈련준비금 및 훈련수당 지급 등
- 문 의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센터 053)550-6000

>>> 국민연금, 농어업인 국고보조금 지원안내

2009년 1월부터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국민연금 국고보조금 액 최고금액이 27,900원에서 32,850원으로 조정되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국민연금가입자 중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경우로 사업자등록(간이과세는 관계없음)이 없거나 농업 이외의 소득이 농업소득보다 적은 자이다. [문의 : 국민연금콜센터 1355, 국민연금 포항지사 280-0853]

>>> 2009신광비학산학마을 디카숨씨대회

- 응모기간 : 6월 16일 ~8월 10일
- 주 제 : 학들의 향연 + 학마을 풍경
- 출 품 수 : 1인 2작품
- 제출방법 : 신광비학산학마을 홈페이지 - 2009 디카숨씨대회 게시판 등록

>>> 교통안전 UCC 공모전 안내

- 참가자격 :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모든 국민
- 공모주제 : 안전운전 달인되기, 대중교통 이용백서, 교통수호천사를 찾아라, 보행문화개선(우측통행), 우리가 바라는 미래교통 등
- 공모부문 : 모든 영상물(UCC, 플래시) 5분 이하
- 제출형식 : 720×480 픽셀이상(파일형태 : avi, wmv, mpeg)
- 공모기간 : 6월15일~8월15일
- 당선발표 : 10월 8일 (시상은 10월 27일)
- 기타문의 : 교통안전공단

>>> 죽도동, 저소득자녀 방과 후 공부방 운영



지난 5월 27일 죽도동 소재 구 여성문화회관에서 김완수 죽도동장, 김학동 포스코 품질기술부장 등 관계자들과 강사진,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자녀 방과 후 공부방’ 개강식이 열렸다. 했다. 방과 후 공부방은 죽도동과 자매결연한 포스코 품질기술부 직원들이 나눔의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평소 경제적으로 취약하여 학업 성취도가 약한 지역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학업 의욕을 북돋우고 보다 나은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 연일복지회관 자원봉사자회, 경로잔치 개최

연일복지회관자원봉사자사회(회장 서순금)는 지난 5월 4일 연일복지회관에서 관내 어르신 500명을 초청하여 다과와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한편, 연일문화가족회 사물놀이와 라틴댄스 등의 공연을 마련하여 주위를 흐뭇하게 했다.

>>> 제8회 포항시 모유수유사진 공모전 개최

모유는 엄마의 사랑입니다! 포항시 남구보건소는 엄마젖먹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7월 17일까지 ‘제8회 포항시 모유수유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현재 모유수유 중이거나 또는 모유수유 경험자를 대상으로 모유수유모습의 사진을 접수받아 7월 21일 심사를 거쳐 20점을 선정하여 남구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한다. [문의 :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270-4059]

>>>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킵시다

- 수영하기 전 손·발 경련 방지를 위해 준비운동을 한다
 - 물에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신다
 - 수영도중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물놀이 중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 구조 무경험자는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간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는다.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장대, 튜브, 스티로폼스티로폼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 건강이 나쁘거나 배가 고플 때, 식사 후는 수영을 금한다
 -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장시간 수영하거나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 [문의 : 포항시재난안전대책본부 080-351-3650]

■ 안전캠페인 ■

전기안전을 생활화합시다!!

- 건축물 신·증축 및 이삿짐 운반시 전기안전에 유의합니다.
- 비계틀·비계목 작업 시 전력선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
 - 크레인·펌프카 이용 시 전력선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
 -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 시 전력선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
- [한국전력 포항지점 271-7268~9]

안전띠·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합시다!!

안전띠, 안전모 착용하면 교통사고 시 사망률 45%이상이 감소됩니다.
[포항남부경찰서·포항북부경찰서]

2009년 시민상 및 지역발전 기부자에 공로패 수여

포항시는 6월 12일 시민의 날을 맞아 2009년 시민상 및 지역발전전에 공헌한 기부자 12명에 대해 공로패를 수여하고, 이들의 지역사랑과 지역발전 노력에 감사를 표시했다. 2009년 포항시 시민상은 한국차인연합회 포항차인회장 김인순(78 여)씨가 수상했다. 김회장은 두리차회를 통해 우리차를 알리고 전통예절교육을 통한 후진양성과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한 것은 물론 중국, 일본 등 국제적 차문화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차의 우수성과 문화도시 포항을 알리는데 힘써왔다. 또 불우한 이웃과 복지시설 등을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각종 행사 등에도 무료차 봉사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시민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포항발전에 기여한 기부자들에 대한 공로패 수여가 있었는데 명단은 다음과 같다. ▲포항영흥초등학교를 설립하고 정부에 헌납한 포항운수(주)故김용주 대표 ▲영암도서관 및 호미곶 해맞이광장 연오랑 세오녀상을 건립 기부한 황대봉 대아그룹 명예회장

▲구 중앙동사무소를 건축 기부한 (주)삼일故강신우 회장 ▲서경도서관 건립비를 지원한 포항상의 회장故오실광 ▲구 죽도1동사무소를 건립 기부한 포항주택故이상목 대표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를 기부한 조내과결핵의원 조옥근 원장 ▲구 포항고등학교 부지를 기증한 향도조선소故김춘생 대표 ▲개인 소장도서 2,000권을 기증한 배용일 포항대학 초빙교수 ▲청사에 조형 소나무를 기증한 허화남 ▲실내체육관 건립 철강재 지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섬안큰다리 건립 철강재 지원, 환호해맞이공원 조성 사업비 지원, 남구보건소 건립 부지, 동빈내항복원 사업비 등을 지원한 (주)포스코 ▲호미곶 '상생의 손' 건립비와 포항시 청사에 미술품을 기증한 (주)대구은행 등이다. 포항시는 이밖에 읍면동별로 경로당이나 보건진료소 부지 등을 기부한 흥해읍 용전리故정주남씨(이병석 국회의원 母)등 23명의 기부자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 관세사에서 모자원까지 장학금 기탁 줄이어

서태원 관세사가 5월 25일 포항시장학회에 장학금 5천만 원을 기탁했다. 서 관세사는 "최근 경기침체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300억 장학금 조성이 부진한 것 같아 기탁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 관세사는 현재 포항테크노파크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경북중소기업지원센터 동부지소 관세무역분야 자문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5월 28일에는 SK텔레콤 중부대리점(대표 황보선) 1,000만원, (주)아이테크(대표 김상준) 500만원, 장량동 떡고개벚꽃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명조) 200만원, 포항환호여자중학교(교장 배영근)가 15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또 6월 1일에는 이동중학교(교장 손병천) 교직원과 학생일동이 274만6천원, 포항시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협의회장 이종룡)가 200만원을 각각 기탁했으며, 3일에는 창포중학교(교장 김수현) 교직원과 학생일동이 100여만 원을, 11일에는 포항모자원(원장 신인숙)에서 12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 희망돼지 저금통 열어 불우이웃돕기



포항시새마을회(회장 김희수)는 6월 4일 포항시새마을회관 회의실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희망돼지 저금통 모으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제살리기 '모아보자'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포항시새마을회원과 일반시민 300여명이 참여해 지난 3월 나눠준 희망돼지 저금통과 4월 포항시민걷기대회에서 시민들에게 나눠준 희망돼지 저금통 2,000여개를 수거해 500여만 원을 모았다. 모금한 기금은 어려운 이웃돕기사업에 사용된다.

>>>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 멋진 선물을!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거주하는 박웅택(67·남)씨가 포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행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자의 자부담 500만 원을 대신 부담하겠다고 밝혀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흥해에서 우리홈마트를 운영하는 박 씨는 포항시 청소년선도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지역봉사는 물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기부에도 꾸준히 동참해 오고 있다.

포항시인터넷방송(ITV)에서 포항을 한눈에!

환경해경제권 국제물류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포항의 역동적인 모습과 포항시정 등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tv.ipohang.org
시청홈페이지(www.ipohang.or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제목 | 산200906 | 크기 | 110p | 재료 | Oil color



최복룡
계명대학원졸업 / 개인전 4회
경상북도미술대전 초대작가, 운영위원 / 포항-포스코 불빛 미술대전 운영위원장
포항 현 안강여자중고등학교·선린대학 출강 / 포항미술협회 지부장

무감어수 감어인 無鑒於水 鑒於人

노을이 지는 저녁산은 아름답다. 느릿느릿 어두워지는 일상의 공간에서 그것은 마치 마법과도 같은 빛을 뿌리며, 신비의 화원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최복룡은 사실적인 풍경작업에서 시작하여, 점점 자연을 근원적인 물음의 대상으로 형상화시켜 왔다. 그는 색과 선의 분분한 혼날림 속에 스스로를 가탁하고 수신하는 공간으로써의 풍경을 우리에게 선보인다. 옛 사람들은 물에다 얼굴을 비추지 말고(無鑒於水), 사람들에게 자신을 비추라고 하였다(鑒於人). 그의 풍경은 자연의 외관에 천착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산에 비추고 흡사 수도승의 거울을 닮았다. 그래서 그의 산은 면밀한 관찰에 의한 자연속의 세계지만, 장중한 산맥에서 익어가는 정신의 참숫처럼 더욱 우렁차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도 모른다.

[김갑수 포항시립미술관장]